

드림레터 10월

자녀의 꿈을 지원하는 학부모 진로소식지

24 호 호기심이 만드는 미래



자녀의 미래, 지적 호기심에서 찾다

호기심은 어떤 힘인가?

알고 있는 것과 알고 싶은 것 사이의 차이를 줄이기 위해 새로운 지식을 얻고자 하는 욕망이 호기심입니다. 이는 새로운 지식과 자극을 습득하길 원하는 인간의 기본적 원동력으로, 탐구적인 행동을 촉진합니다. 호기심이 충족되지 않으면 불만족이나 불쾌함 등의 심리적 고통을 느끼게 되기 때문에 사람은 만족을 느끼기 위해서라도 호기심을 해소하려 합니다.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원동력, 호기심

‘호기심’을 핵심 키워드로 삼은 독일의 과학기술 기업 MERCK (머크)사는 호기심을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원동력**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기업은 당장 수익을 낼 수 없더라도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면 투자한다는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호기심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스스로 탐구하는 것에 대한 즐거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험은 학업 성적에도 영향을 미치며 자유로운 탐색과 정보수집 등 자기탐구와 학습에도 필요한 조건입니다.

(출처 : 오종석 외 2인(2014), 초등과학영재아동과 일반아동 부모의 학습관여와 지적호기심 및 과학창의성의 관계 연구)

부모의 도움으로 자녀의 호기심을 길러요

자녀의 성장 단계에서 부모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 있습니다. 첫째는 ‘호기심의 씨앗을 뿌릴 것’, 둘째는 ‘자녀를 관찰하며 자녀가 변화하는 시기에 맞춰 도움을 줄 것’입니다. 부모의 도움으로 길러진 ‘호기심’은 아이에게는 소중한 자산으로서 평생에 걸쳐 자녀의 인생을 지켜줄 든든한 지원군이 됩니다.

실제로 2~3살 때부터 손에 잡히는 대로 상자와 장난감을 부수며 놀았던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아무리 주의를 주어도 ‘망가뜨리는 버릇’은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아이는 정말 재미있다는 듯이 물건들을 분해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부모는 결국 남들이 쓰지 않는 장난감을 모아 아이에게 주며 ‘망가뜨려도 괜찮다’고 하였습니다. 장난감을 부수는 걸 부모가 아이의 흥미 중 하나로 이해하고 칭찬하자 아이는 자라면서 ‘분해 놀이’를 발전시켰습니다. 이 아이는 정밀한 기계도 완벽하게 분해하는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출처 : 다키 야스유키(2018), 『뇌 과학자 아빠의 기막힌 낯지 육아』)

진로교육 Tip

일상생활에서 자녀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방법

모든 창의적 위인들이 지닌 ‘호기심’은 끊임없는 배움에 대한 욕망입니다. 한 가지 희소식은 모든 아이가 호기심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것이죠. 자녀의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려면 자녀와 함께 답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겉으로 보기에 쓸모없고 이상해 보이는 불확실한 것들도 받아들이 수 있는 열린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녀의 호기심을 키우기 위해서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또는 자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1. 어떤 질문을 해도 무시하거나, 흥분하거나, 다른 주제로 돌려 빠져나가는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 자녀가 어려운 질문을 했다는 것에 대하여 대견함을 표현해 주세요.

3. 자녀의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있는지, 왜 이런 질문을 하는지 알아내서, 정확히 답하고 아래와 같은 추가 질문을 사용해서 더 깊은 단계의 질문으로 유도해 보세요.
“OO야 이런 질문을 하게 된 이유가 뭘까?
이것에 대해서 OO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니?”

4. 만일 질문에 대한 답을 모를 때는,
“잘 모르겠는데, 어떻게 같이 답을 찾을 수 있을까?”
라고 솔직하게 반문해 보세요.

5. 좀 더 나이가 든 자녀에게는 직접 설명을 해주기보다는 자녀가 스스로 답을 찾을 수 있도록 질문을 유도하고, 더욱 복잡한 수준의 답을 요구하는 질문을 할 수 있도록 가르쳐 보세요.

6. 완곡한 용어를 사용하고 극단적인 용어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 절대, 전부 아니면 무, 혹은 아니면 백, 일 아니면 놀이)

(출처 : 교육부 공식 블로그, 2017.08, 창의적 성공의 조건 (4) “호기심을 키워라!”)



초등학생도 발명 할 수 있어요!



대구 OO초 6학년 김OO학생의 발명품



제 23회
'대한민국학생발명전시회'
수상작
똑똑한 책꽂이

어떤 발명품인가요?

책을 꽂으면 책의 무게로 인해 용수철과 연결된 책꽂이 한쪽이 점점 기울어지기 때문에 책이 반대로 쓰러질 일이 없습니다. 또한 뒤쪽 판이 곡면으로 만들어져 있어 책이 삐곡하게 꽂혀 있어도 책 앞부분을 살짝 뒤로 밀어 빼내면 책이 훼손되지 않습니다.

왜 발명하게 되었나요?

부모님께서 늘 저에게 '주변 정리를 깨끗하게 해야 공부가 잘된다.'고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책꽂이 정리를 아무리 잘 해보려고 해도 책이 자꾸만 쓰러지고, 삐곡하게 꽂힌 책들 사이에서 필요한 책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충북 OO초 5학년 김OO학생의 발명품



제 36회
'전국학생과학발명품경진대회'
수상작
발로 부는 호루라기

어떤 발명품인가요?

호루라기를 불 때, 기압이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공기가 빠르게 이동한다는 원리를 활용하여 만들었습니다.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도록 밟아도 원래대로 돌아오고, 제대로 된 소리가 나는 호루라기를 발명하기 위해 신경 썼습니다.

왜 발명하게 되었나요?

겨울철 등굣길 건물목에서 교통봉사를 하시는 엄마가 입으로 계속 호루라기를 부느라 마스크를 쓰지 못하셨는데, 그런 엄마가 감기에 걸릴까 걱정되어 발명하게 되었습니다. 이 호루라기를 교통지도 하시는 부모님뿐만 아니라 손이 불편한 사람이나 운동경기 심판들도 편하게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8 찾아가는 학부모 공감 진로교육 콘서트

교육부와 충남교육청,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4일 천안교육지원청 대강당에서 '2018년 찾아가는 학부모 공감 진로교육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교육 전문가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진로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고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같이 있는 곳에 뜻이 있다

먼저 '시로 꿈꾸는 우리 교육의 미래'라는 제목으로 한양대학교 정재찬 교수의 특강이 있었습니다. 정재찬 교수는 자녀들이 학부모들에게 남들이 원하는 경쟁에서 벗어나,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인성과 창의력을 갖춘 아이'로 친구들과 더불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이끌기를 당부했습니다.

진로교육의 현재와 미래

중앙교육연수원의 조동현 교수는 '우리가 살아온 과정, 그리고 살아가는 과정이 모두 진로'라며, "무엇이 될 것인지 보다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자녀의 진로선택과 성장을 돕는 학부모 역할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이상길 교육연구사는 자녀의 진로선택에 있어 학부모의 영향력이 크다고 하며, 자녀를 미래사회의 역량 있는 인재로 기르기 위해서 '자녀 스스로 자신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고 하였습니다.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대학입학정책

이화여자대학교 안정희 입학사정관은 "교육과정과 대입의 변화는 사회 흐름의 변화에 따른 필연적인 일"이라며, 사회에서 창의·융합형 인재를 요하는 만큼 과정중심의 융복합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 생활에 집중하기를 당부했습니다.

WEEKLY NEWS

진로레시피 학부모를 위한 누구나 평생 고민하는 자신의 진로, 정확하게 알고 준비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학부모가 궁금해 하는 자녀 진학정보, 진로고민 상담, 직업정보 등을 제공하는 학부모 진로교육 팟캐스트, 매주 팟캐스트(iOS)&팟빵(Android)에서 만나보세요!

학부모를 위한 진로레시피 최신편 들어보기▶



<특독! 곰TALK!>

진로 고민, 사연을 보내주세요~

꿈을 찾아 달려가는 학생, 아이의 미래를 위해 도움을 주고 싶은 학부모, 학생들을 더 바른 길로 인도하고 싶은 선생님의 고민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립니다! 하단의 메일로 고민을 보내주시면 선정된 사연과 그에 대한 전문가답변을 드림레터 또는 진로레시피에서 소개합니다.

전국학부모지원센터 <jinrohlp@naver.com>



교육부
Ministry of Education



국가평생교육진흥원
National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